

---

# 2022년 외국인근로자 재정착지원 설문조사 분석

---

## I. 개요

- 조사목적 : 「외국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내에 취업 중인 외국인근로자의 성공적인 귀국 및 안정적인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함
- 조사대상 : 센터에 내방하는 외국인근로자(E-9, H-2)
- 조사기간 : 2022. 04. 4. ~ 06. 30.
- 조사방법 :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자국어 통역원 동석 통역
- 응답자 국적 :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중국 등 6개국
- 분석 설문지 : 300부
- 설문조사 내용 : 응답자 일반적 특성, 입국과정, 취업 및 생활 등 24문항

## II. 설문조사 분석요약

### □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이번설문의 **참여인원**은 총 300명 중 네팔,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각50명(16.6%), 우즈벡 48명(16.0%), 중국 39명(13.0%), 스리랑카 5명(1.66%), 방글라데시 4명(1.33%), 파키스탄, 키르기스스탄 각2명(0.66%) 응답함.

응답자의 300명 중에 250명(83.3%)이 남성, 여성은 50명(16.6%)이 차지하고, 연령은 30대가 182명(60.6%)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59명(19.6%), 40대 45명(15.0%), 50대 11명(3.6%), 60대 이상 3명(1%)로 가장 낮았다.

본국에서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155명(51.6%) 가장 높았고, 대학(2년제) 64명(21.3%), 대학(4년제) 52명(17.3%), 중학교 28명(9.3%)순으로 나타났으며, 결혼 유무

는 기혼이 196명(65.3%)으로 절반이상으로 나타났다.

## □ 입국 과정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시기**는 2019년 99명(33.0%) 으로 가장 많았고 2018년 60명(20.0%), 2017년 39명(13.0%), 2020년 29명(9.6%), 2016년 25명(8.3%), 2013년 13명(4.6%), 2012년 12명(4.0%), 2021년 6명(2%), 2014년 5명(1.6%), 2011년 4명(1.3%), 2015년 3명(1.0%), 2010년 2명(0.6%), 2022년, 2008년 각 1명(0.3%)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체류자격**은 비전문취업비자(E-9) 244명(81.3%)으로 가장 많았고, 방문취업비자(H-2) 56명(18.6%) 그 뒤를 이었다.

한국어 시험 후 한국에 입국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6개월 이상~1년 미만 124명(50.8%), 1년 이상~2년 미만 84명(34.4%), 6개월 미만 19명(7.7%), 2년 이상~3년 미만 14명(5.7%), 3년 이상~4년 미만 3명(1.2%) 순으로 나타났고,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은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30명(53.2%),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52명(21.3%), 50만원 미만 50명(20.4%),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1명(4.5%)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오기 위해 자국의 **정부기관에 지불한 금액**(항공료, 비자 발급비, 송출 수수료 등)은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06명(43.4%),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81명(33.1%),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20명(8.2%)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800만원 9명(3.6%), 700만원 3명(1.2%), 900만원 3명(1.2%), 1,500만원 1명(0.4%)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빨리 입국하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뇌물**(비공식적인 금액)을 지출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3명(1.0%)있다고 응답하였고, 지불한 **뇌물이 입국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2명(66.6%), 그저 그렇다 1명(33.3%)으로 나타났다.

해외 취업지로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임금이 높아서 196명(65.3%), 한국에서 일한 친구나 친지의 권유 48명(16.0%), 다른 나라에 비해 안전해서 18명(6.0%)순으로 나타났으며, **본국에서의 직업**은 공장노동자 97명(32.3%), 단순노무 76명(25.3%), 개인사업 50명(16.6%)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오기 전 본국에서 **근로계약조건** 내용에 대해 조금알고 있다 114명(46.7%), 매우 잘 알고 있다 110명(45.0%), 전혀 알지 못했다 9명(3.6%)순으로 나타났다.

## □ 취업 및 한국생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업종**은 제조업 259명(86.3%), 서비스업 19명(6.3%), 농·축산

업 15명(5.0%), 건설업 7명(2.3%) 순으로 나타났고, 현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3년 이상~5년 미만 99명(33.0%), 1년 이상~2년 미만 79명(26.3%), 2년 이상~3년 미만 62명(20.6%)순이며, **사업장변경 횟수**는 2회 105명(35.0%), 1회 66명(22.0%), 사업장 변경 없음 84명(28.0%)로 나타났음.

현재 **사업장 변경을 원하는** 응답자는 15명(5.0%), 285명(95%)는 사업장변경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장 변경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이 힘들어서 9명(60.0%), 임금이 적어서 6명(40.0%)순이며,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가 4명(66.6%),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2명(33.3%)로 나타났다.

본국에 송금한 **돈의 사용처**는 1순위로 가족 생활비 지출 229명(76.3%), 2순위 중 가장 높은 응답은 자녀 교육비 99명(33.0%), 3순위 중 가장 높은 응답은 저축 143명(48.6%)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생활 중 **가장 힘든 것**은 159명(53.0%)가 언어소통을, 76명(25.3%)가 음식으로 응답하였다.

한국에서 **가장 받고 싶은 교육**은 1순위 1위로 한국어교육 203명(67.6%), 2순위 1위로 기술관련 교육(용접, 중장비, 자동차 수리 등)122명(40.6%)로 나타났고, **체류기간 만료 후** 귀국할 생각이다 176명(58.6%), 체류자격을 변경할 생각이다 95명(31.6%), 귀국하지 않을 생각이다 1명(0.3%)로 나타났고 귀국하지 않는 이유는 체류기간 부족으로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 □ 귀국준비 및 재정착 계획

본국 **귀국 후 계획**에 대해 한국에 재입국 112명(37.3%), 개인사업 71명(23.6%), 아직 계획 없음 53명(17.6%)로 나타났고, 계획이 없는 이유는 한국에 재입국 생각해보겠다 29명(49.0%), 한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몰라서, 가족이 준비하고 있어서 각 8명(15.0%)로 나타났다.

**재정착을 하기 위한 준비**로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있다 258명(86.0%), 창업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18명(6.0%), 특정 기술을 배우고 있다 10명(3.3%), 한국 정부의 귀국지원프로그램 적극 참여 5명(1.6%)로 나타났다.

**귀국 준비 절차**에 대해 146명(48.6%)가 잘 알고 있다 154명(51.3%)가 잘 모른다고 답하였고 그중 153명(99.3%)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고 싶다고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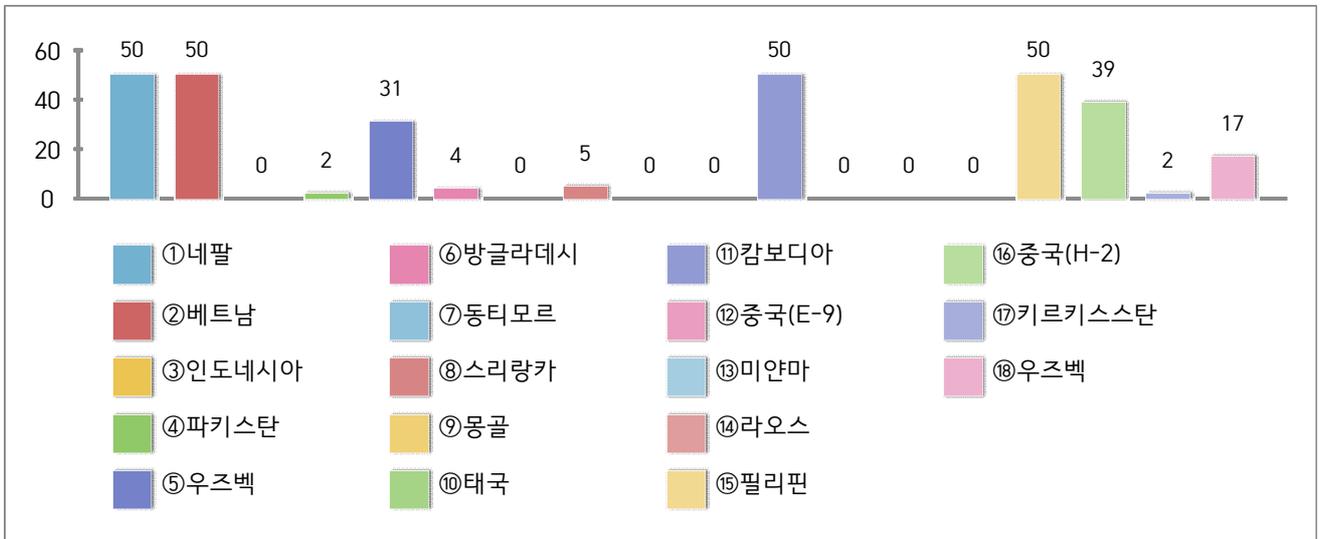
203명(67.6%)이 한국에서 경험한 것이 귀국 후의 삶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응답하였다.

### Ⅲ. 외국인노동자 재정착지원 설문조사 분석

#### I. 응답자 일반적 특성

##### 1. 귀하의 국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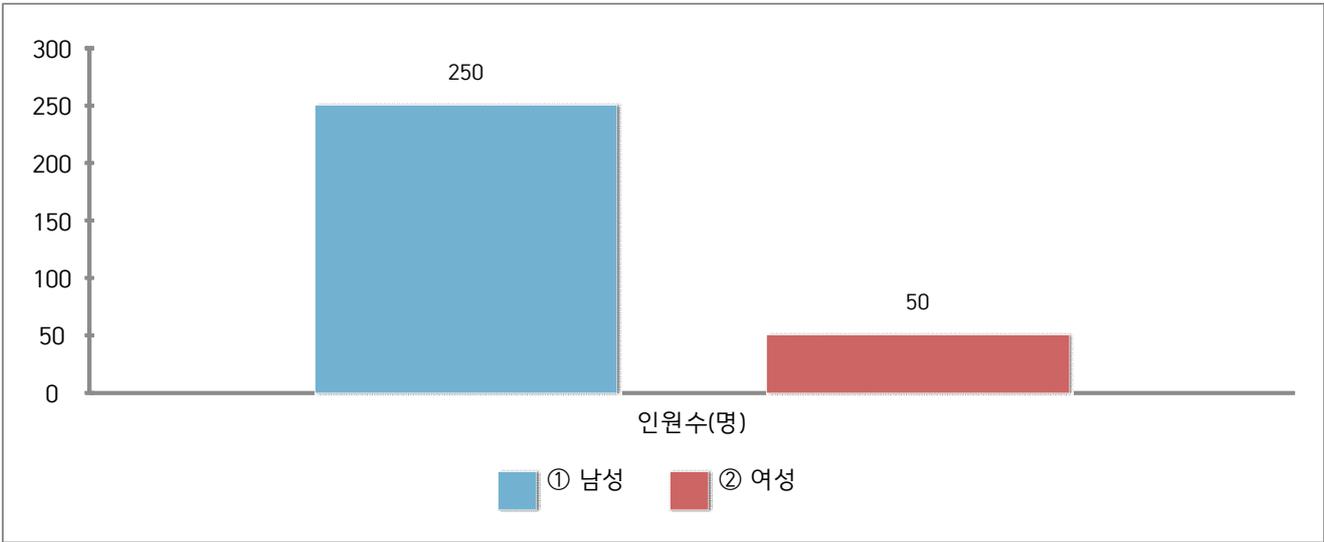
구분	① 네팔	② 베트남	③ 인도네시아	④ 파키스탄	⑤ 우즈벡	⑥ 방글라데시	⑦ 동티모르	⑧ 스리랑카	⑨ 몽골	⑩ 태국	⑪ 캄보디아	⑫ 중국(E-9)	⑬ 미얀마	⑭ 라오스	⑮ 필리핀	⑯ 중국(H-2)	⑰ 키르기스스탄	⑱ 우즈벡(H-2)
인원수(명)	50	50	0	2	31	4	0	5	0	0	50	0	0	0	50	39	2	17



○ 이번 설문조사는 네팔,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각 50부, 우즈벡(E-9) 31명, 중국(H-2) 39명, 우즈벡(H-2) 17명, 스리랑카 5명, 방글라데시 4명, 파키스탄, 키르기스스탄 각 2명 총300명 참여함.

##### 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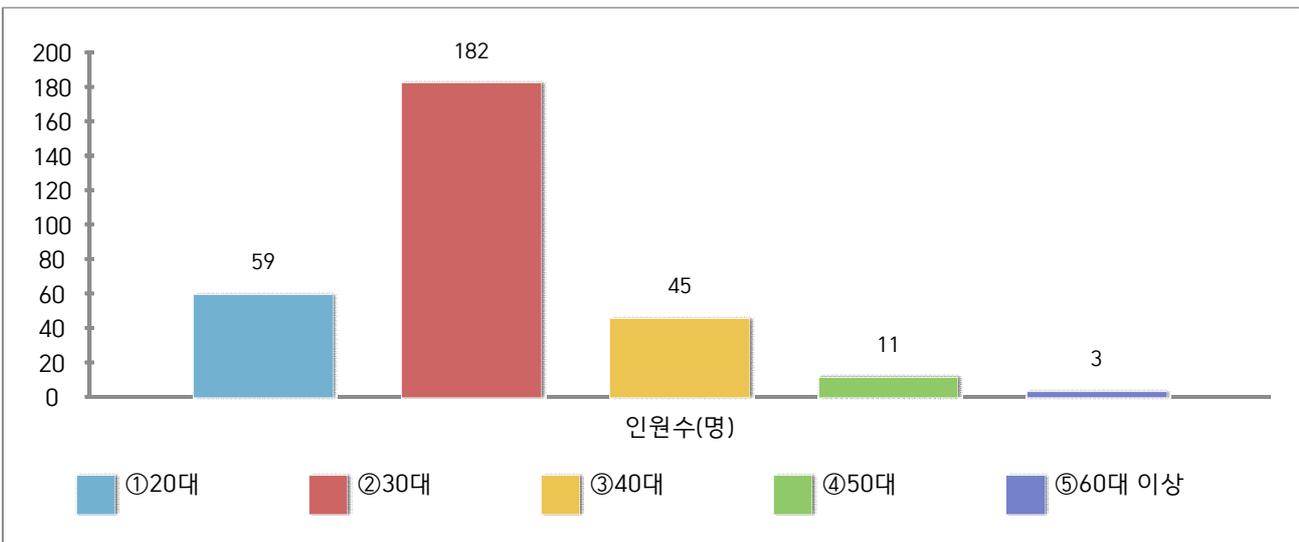
구분	① 남성	② 여성
인원수(명)	250	50



○ 응답자의 300명 중 남성 250명(83.3%), 여성 50명(16.6%) 나타남

### 3. 귀하의 나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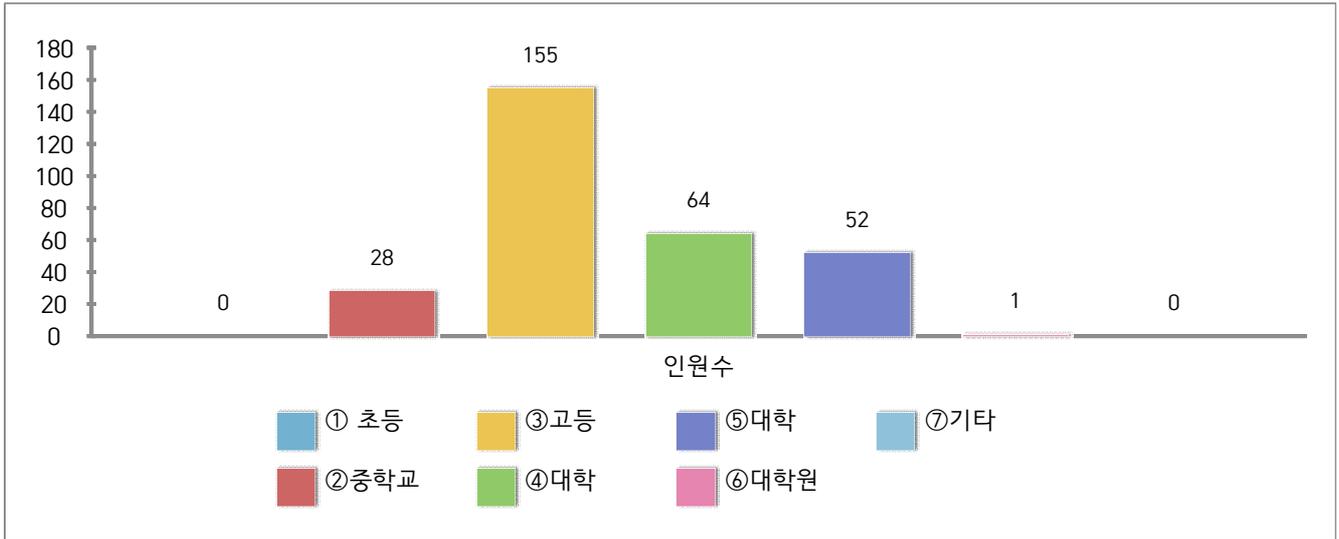
구분	①20대	②30대	③40대	④50대	⑤60대 이상
인원수(명)	59	182	45	11	3



○ 응답자 300명 중 20대 59명(19.6%), 30대 182명(60.6%), 40대45명(15.0%), 50대11명(3.6%), 60대3명(1.0%)로 나타남.

#### 4.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습니까?(중퇴, 휴학도 졸업으로 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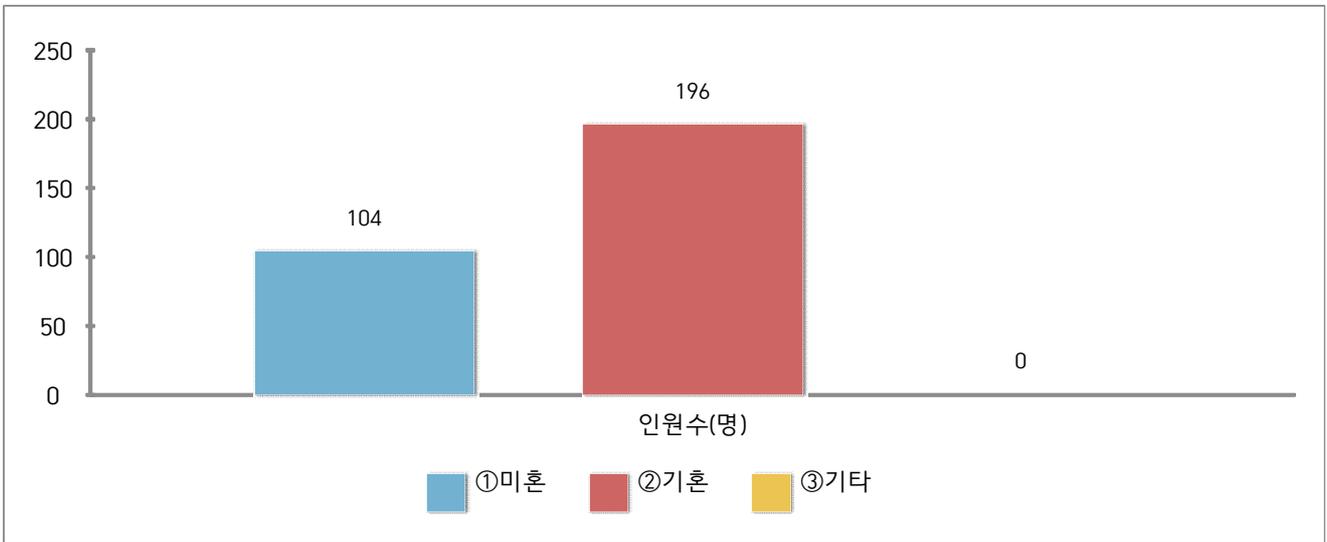
구분	① 초등학교	②중학교	③고등학교	④대학(2년제)	⑤대학(4년제)	⑥대학원	⑦기타
인원수(명)	0	28	155	64	52	1	0



○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155명(51.6%) 가장 높았고, 대학(2년제) 64명(21.3%), 대학(4년제) 52명(17.3%), 중학교 28명(9.3%)순으로 나타남.

#### 5. 귀하는 결혼을 하였습니까?

구분	①미혼	②기혼	③기타
인원수(명)	104	196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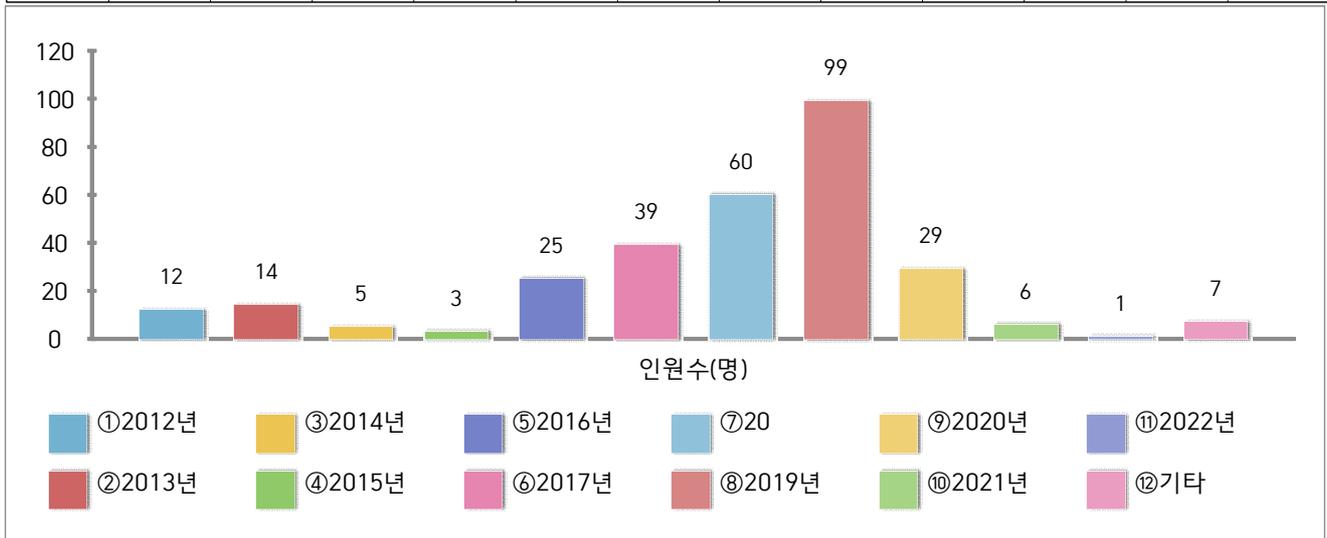


○ 결혼 유무는 기혼이 196명(65.3%), 미혼 104명(34.6%)로 과반이상이 결혼 후 입국 하는 것으로 나타남.

## II. 입국 과정

### 6. 귀하는 고용허가제로 언제 한국에 처음 입국하였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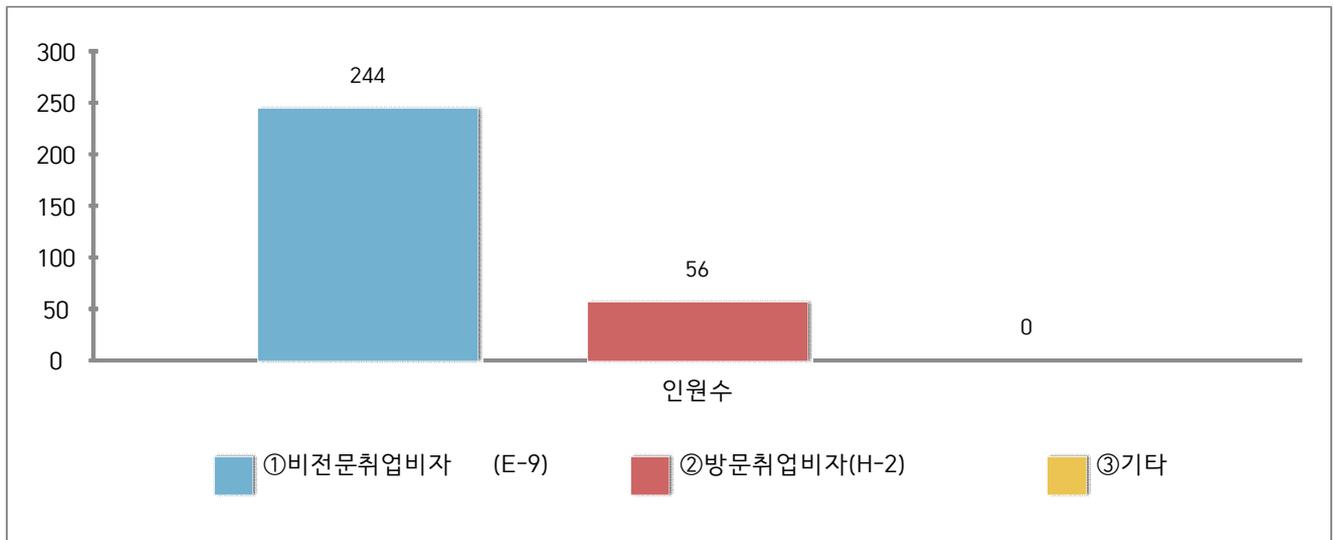
구분	①2012년	②2013년	③2014년	④2015년	⑤2016년	⑥2017년	⑦2018년	⑧2019년	⑨2020년	⑩2021년	⑪2022년	⑫기타
인원수(명)	12	14	5	3	25	39	60	99	29	6	1	7



○ 입국한 시기는 2019년 99명(33.0%) 으로 가장 많았고 2018년 60명(20.0%), 2017년 39명(13.0%), 2020년 29명(9.6%), 2016년 25명(8.3%), 2013년 13명(4.6%), 2012년 12명(4.0%), 2021년 6명(2%), 2014년 5명(1.6%), 2011년 4명(1.3%), 2015년 3명(1.0%), 2010년 2명(0.6%), 2022년, 2008년 각 1명(0.3%)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과 2022년은 코로나 19영향으로 신규근로자 입국이 제한되어 응답자의 비중이 낮게 나타남.

### 7. 귀하의 체류자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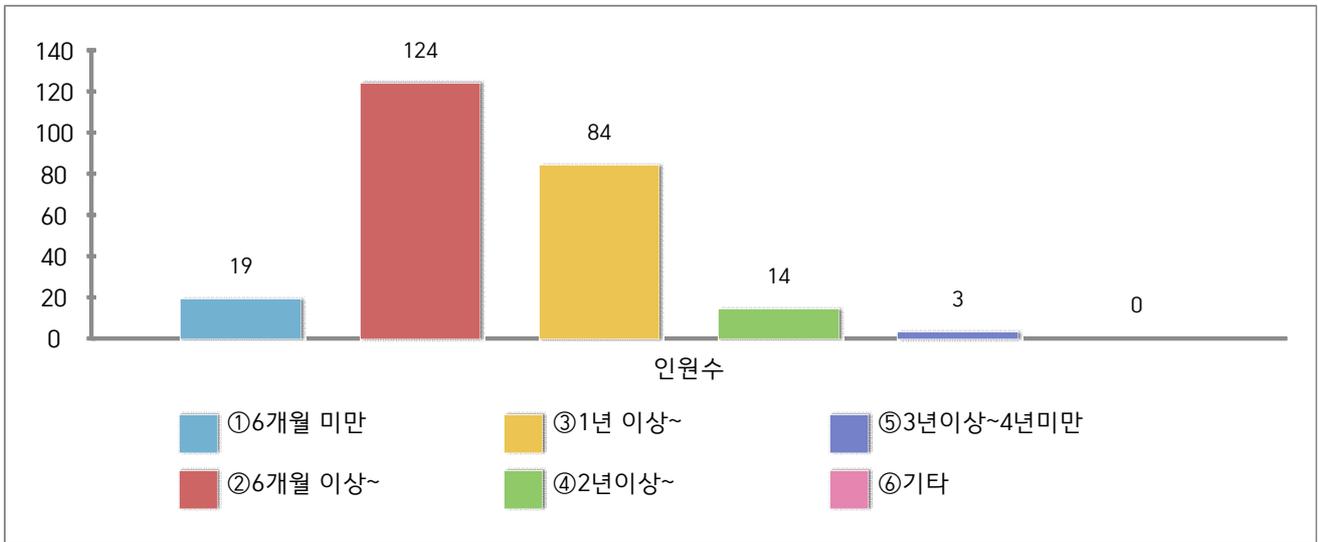
구분	①비전문취업비자 (E-9)	②방문취업비자(H-2) (☞ 8번 문항으로)	③기타 (☞ 8번 문항으로)
인원수 (명)	244	56	0



○ 체류자격은 비전문취업비자(E-9) 244명(81.3%)으로 가장 많았고, 방문취업비자(H-2) 56명(18.6%)순으로 나타남.

#### 7-1. 귀하는 한국어 시험에 합격한 이후 한국에 입국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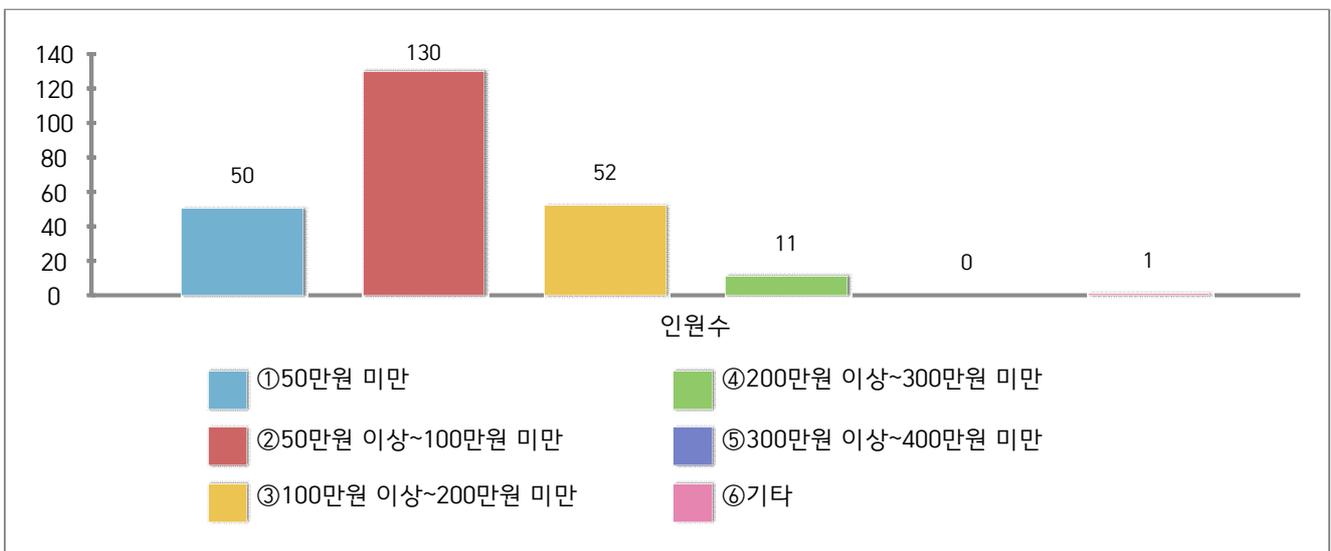
구분	①6개월 미만	②6개월 이상~1년미만	③1년 이상~2년 미만	④2년이상~3년미만	⑤3년이상~4년 미만	⑥기타
인원수 (명)	19	124	84	14	3	0



- 한국에 입국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6개월 이상~1년 미만 124명(50.8%), 1년 이상~2년 미만 84명(34.4%), 6개월 미만 19명(7.7%), 2년 이상~3년 미만 14명(5.7%), 3년 이상~4년 미만 3명(1.2%)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중 비전문취업비자(E-9) 244명중 208명(85.2%) 과반이상이 입국시기는 시험 응시 후 6개월~2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7-2. 귀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얼마의 돈을 사용하였습니까?(입국 당시 한국 화폐로 환산 할 것)

구분	① 50만원 미만	②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③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④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⑤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⑥ 기타
인원수 (명)	50	130	52	11	0	1



○ 비전문취업비자(E-9) 244명 중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30명(53.2%),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52명(21.3%), 50만원 미만 50명(20.4%),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1명(4.5%)으로 나타남.

7-3. 귀하가 한국에 오기 위해서 자국의 정부기관에 지불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항공료와 여권·비자 발급비, 송출 수수료, 한국어능력시험 응시료, 건강진단비 등을 포함한 총 경비(입국 당시 한국 화폐로 환산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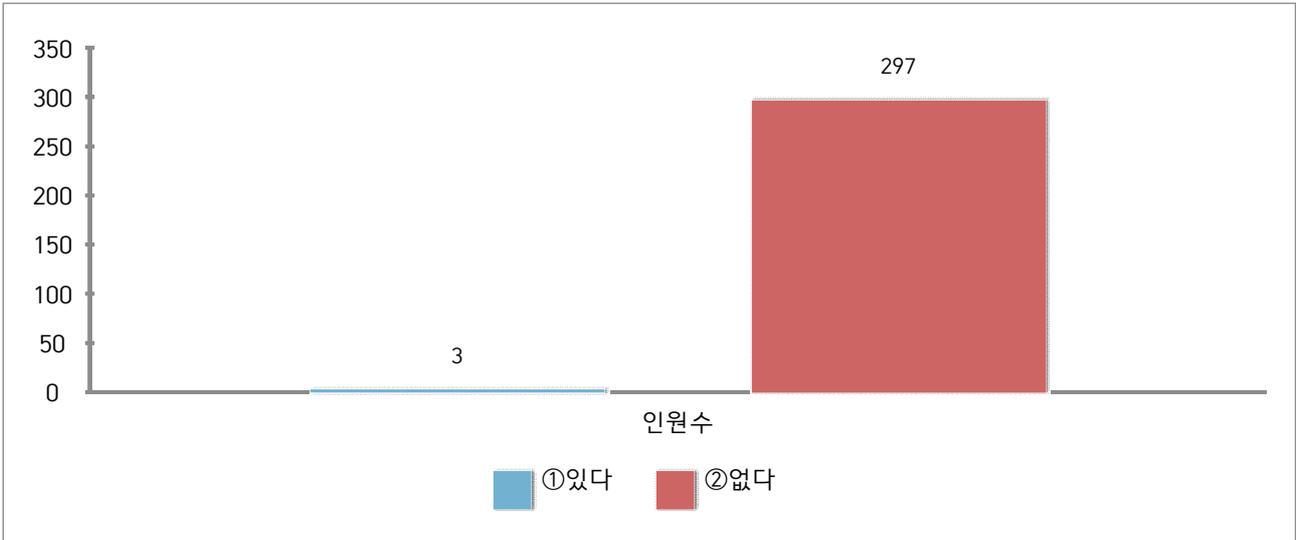
구분	①50만원 미만	②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③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④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⑤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⑥기타
인원수 (명)	0	9	106	81	20	28



○ 비전문취업비자(E-9) 244명 중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06명(43.4%),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81명(33.1%),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20명(8.2%)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800만원 9명(3.6%), 700만원 3명(1.2%), 900만원 3명(1.2%), 1,500만원 1명(0.4%) 순으로 나타남.

8. 귀하는 한국에 오기 위하여 브로커에게 뇌물(비공식적인 금액)을 준 적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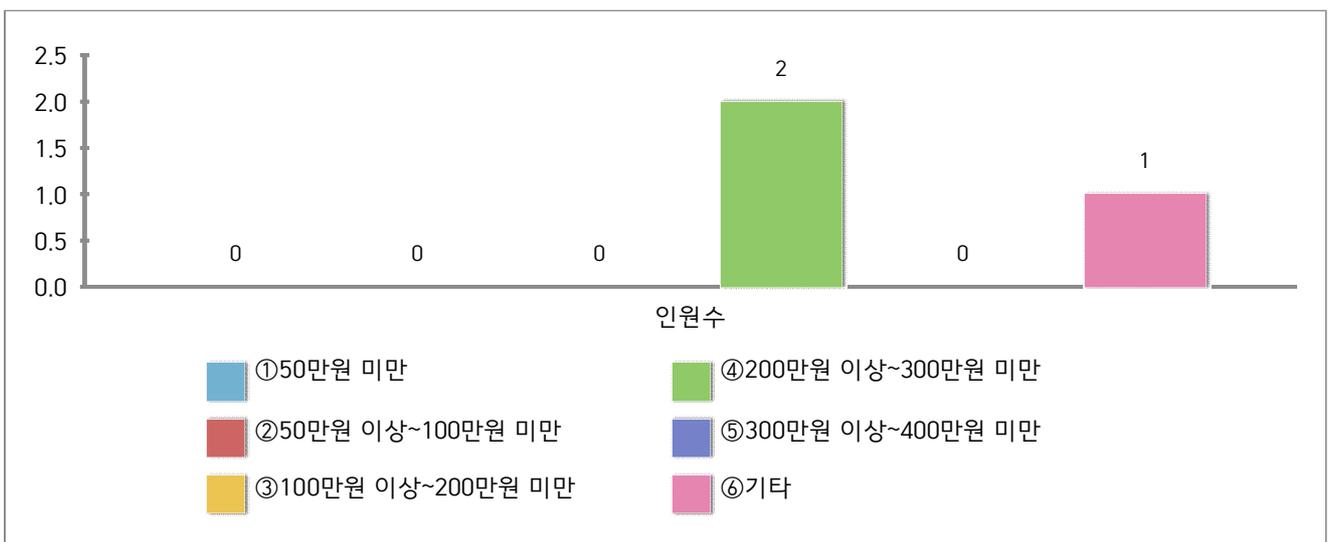
구분	①있다	②없다(☞ 9번 문항으로)
인원수 (명)	3	297



○ 비전문취업비자(E-9) 244명 중 3명(1.0%) 뇌물을 준적이 있다고 응답 함.

8-1. 그 금액은 얼마정도 입니까?(지불 당시의 금액을 한국 화폐로 환산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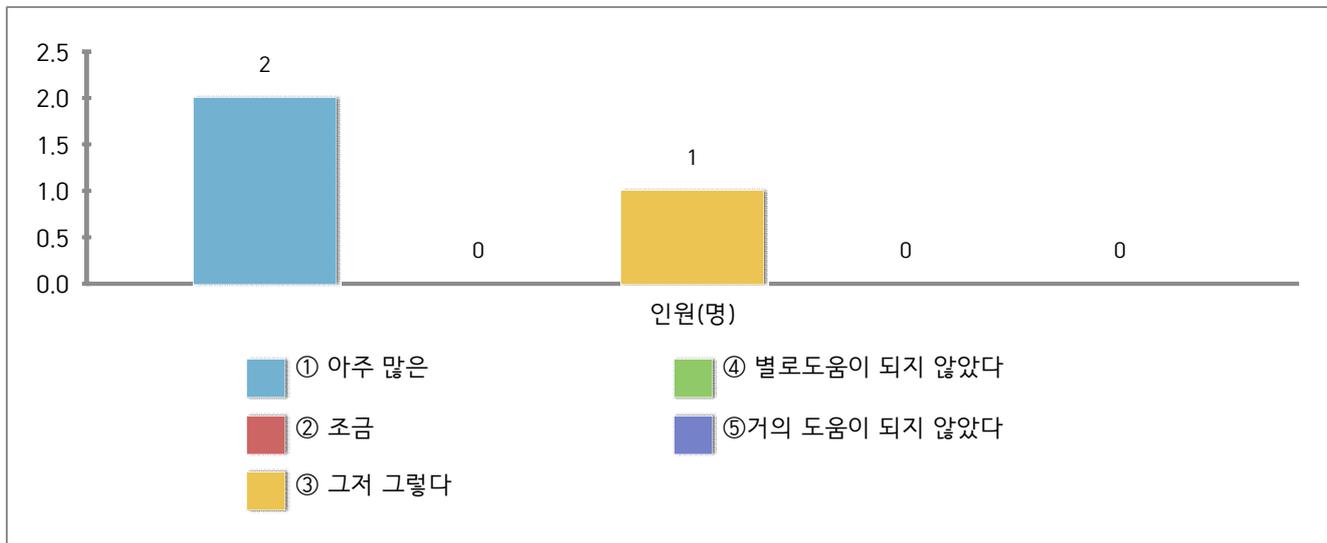
구분	①50만원 미만	②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③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④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⑤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⑥기타
인원수 (명)	0	0	0	2	0	1



○ 응답한 3명 중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명(66.6%), 기타 1명(33.3%)로 1,000만원 정도 지출하였다고 나타남.

8-2. 귀하가 준 뇌물이 한국에 입국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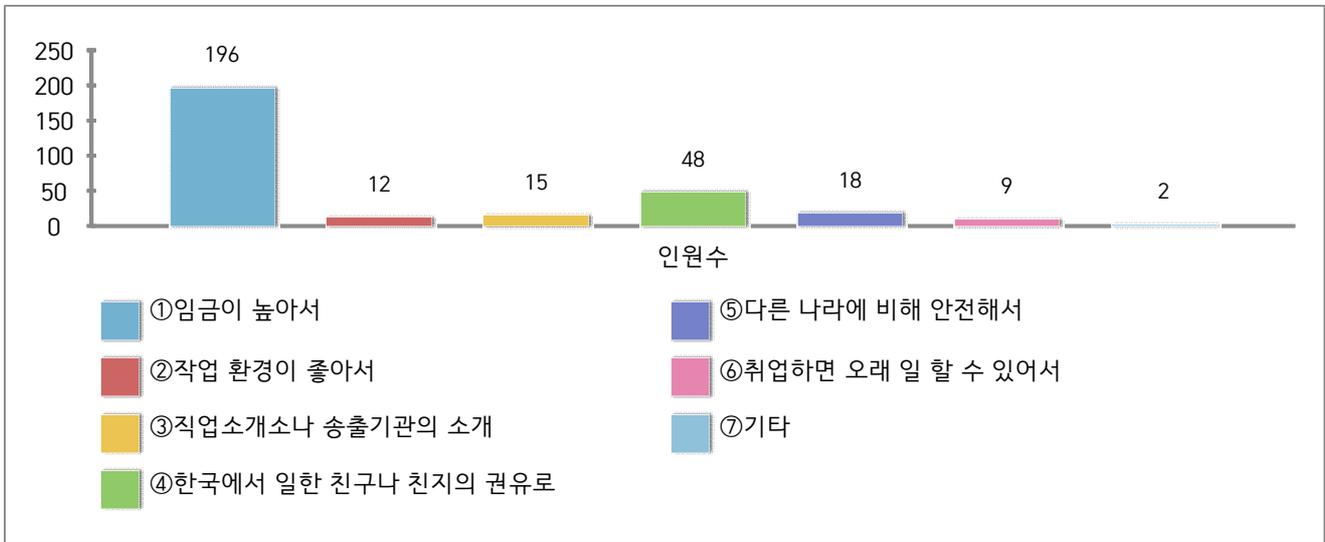
구분	①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다	② 조금 도움이 되었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별로도움이 되지 않았다	⑤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인원(명)	2	0	1	0	0



○ 응답한 3명 중 뇌물이 입국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2명(66.6%), 그저 그렇다 1명(33.3%)으로 나타남.

9. 해외 취업지로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①임금이 높아서	②작업환경이 좋아서	③직업소개소나 송출기관의 소개	④한국에서 일한 친구나 친지의 권유로	⑤다른 나라에 비해 안전해서	⑥취업하면 오래 일할 수 있어서	⑦기타
인원수(명)	196	12	15	48	18	9	2



○ 임금이 높아서 196명(65.3%), 한국에서 일한 친구나 친지의 권유 48명(16.0%), 다른 나라에 비해 안전해서 18명(6.0%), 직업소개소나 송출기관의 소개 15명(5.0%), 작업환경이 좋아서 12명(4.0%) 취업하면 오래 일 할 수 있어서 9명(3.0%), 기타 2명(0.6%)순으로 나타 남. 기타 응답은 가족이 한국에 있어서, 다른 국가보다 빨리 입국할 수 있어서라고 응답함.

### 10. 귀하는 한국에 오기 전에 직업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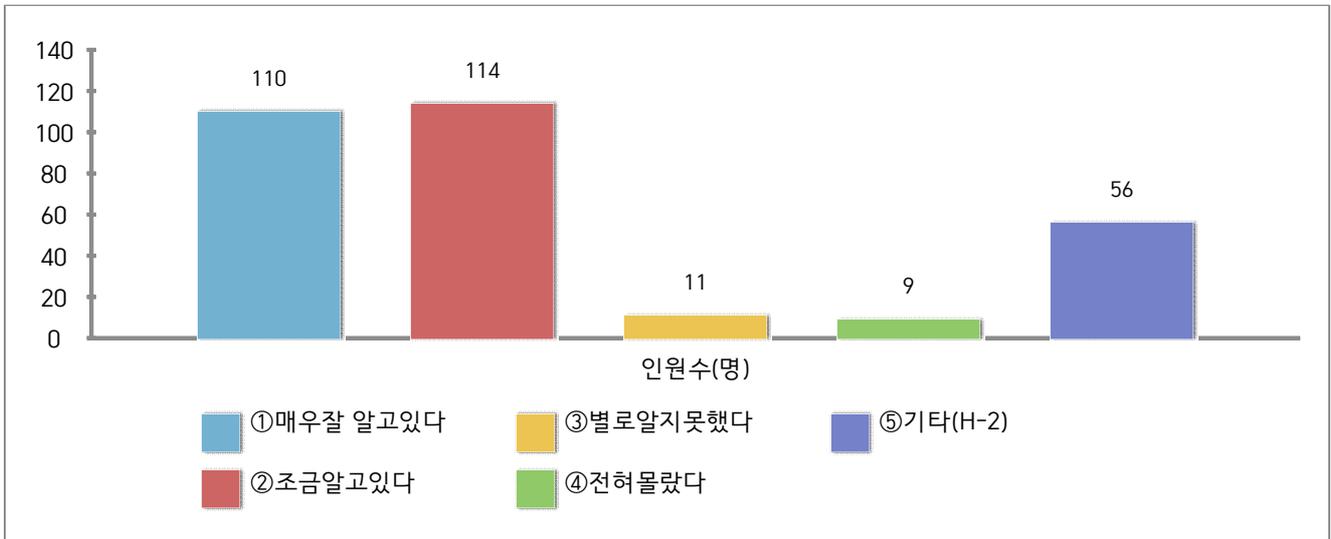
구분	①공장 노동자	②농림어업 종사자	③사무직 노동자	④서비스 판매 종사원(점원 등)	⑤관리자(교사, 공무원 등)	⑥개인사업	⑦단순노무	⑧학생	⑨기타
인원수(명)	97	11	16	21	0	50	76	29	0



○ 공장노동자 97명(32.3%), 단순노무 76명(25.3%), 개인사업 50명(16.6%), 학생 29명(9.6%), 서비스 판매 종사원 21명(7.0%), 사무직 노동자 16명(5.3%), 농림어업 종사자 11명(3.6%) 순으로 나타남.

11. 귀하는 한국에 오기 전에 고용주가 제시한 근로조건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까?

구분	①매우잘 알고 있다	②조금 알고 있다	③별로알지 못했다	④전혀몰랐다	⑤기타(H-2)
인원수(명)	110	114	11	9	56



○ 근로계약을 미리 하고 입국하는 비전문취업비자(E-9) 244명 중 조금 알고 있다 114명(46.7%), 매우 잘 알고 있다 110명(45.0%), 전혀 알지 못했다 9명(3.6%)순으로 나타남.

-방문취업비자(H-2)는 입국 후 구직 후 근로계약 체결

### Ⅲ. 취업 및 생활

#### 12. 귀하의 업종은 무엇인가요?

구분	①제조업	②건설업	③농·축산업	④어업	⑤서비스업	⑥ 기타
인원수(명)	259	7	15	0	19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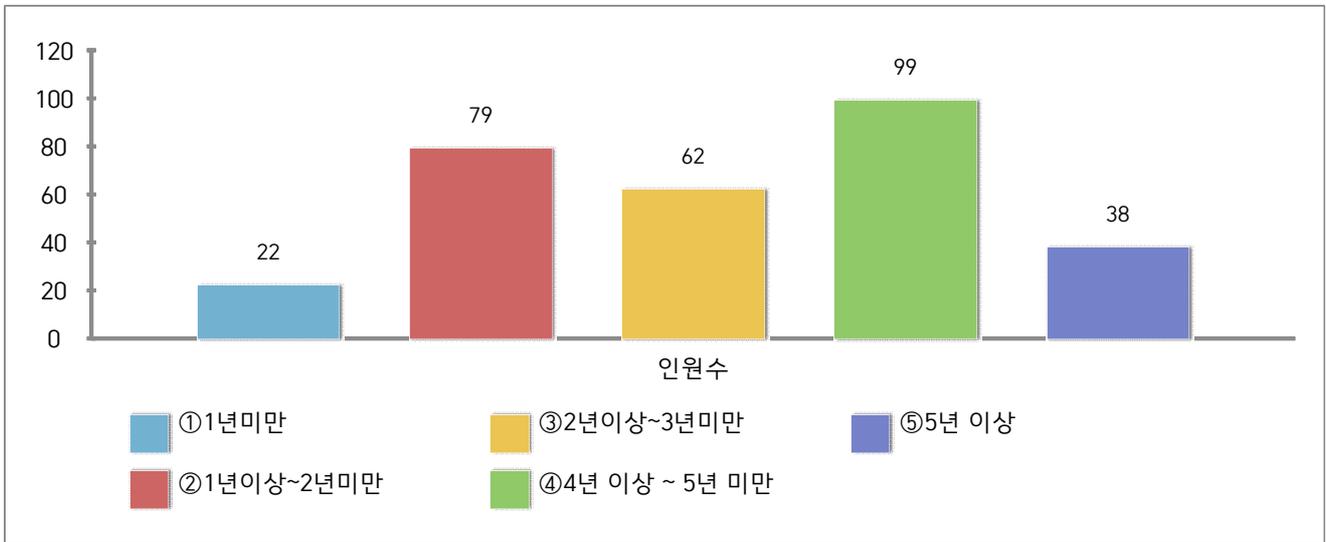


○ 제조업 259명(86.3%), 서비스업 19명(6.3%), 농·축산업 15명(5.0%), 건설업 7명(2.3%) 순으로 나타남.

-센터의 위치 상 제조업이 제일 높은 치수를 나타냄.

#### 13. 귀하는 현재 사업장에서 근무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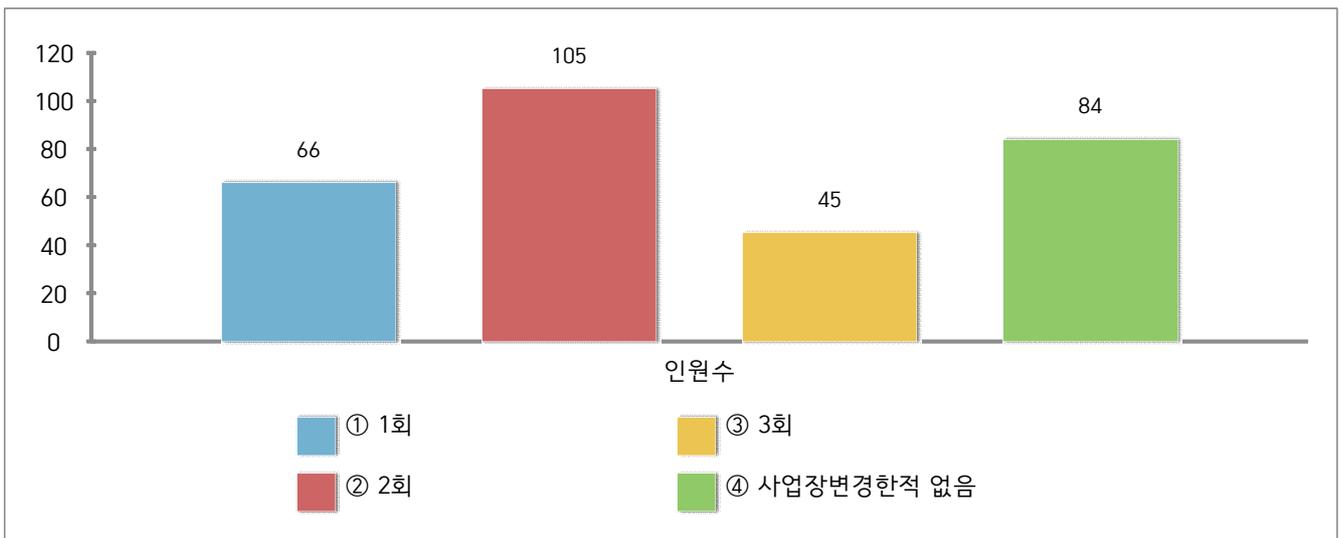
구분	①1년미만	② 1년 이상~ 2년미만	③2년이상~ 3년미만	④4년 이상 ~ 5년 미만	⑤5년 이상
인원수 (명)	22	79	62	99	38



○ 근무한 기간은 3년 이상~5년 미만 99명(33.0%), 1년 이상~2년 미만 79명(26.3%), 2년 이상~3년 미만 62명(20.6%), 5년 이상 38명(12.6%), 1년 미만 22명(7.3%) 순으로 나타남.

#### 14. 귀하는 지금까지 사업장변경을 몇 번 하였습니까?

구분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사업장변경한적 없음
인원수 (명)	66	105	45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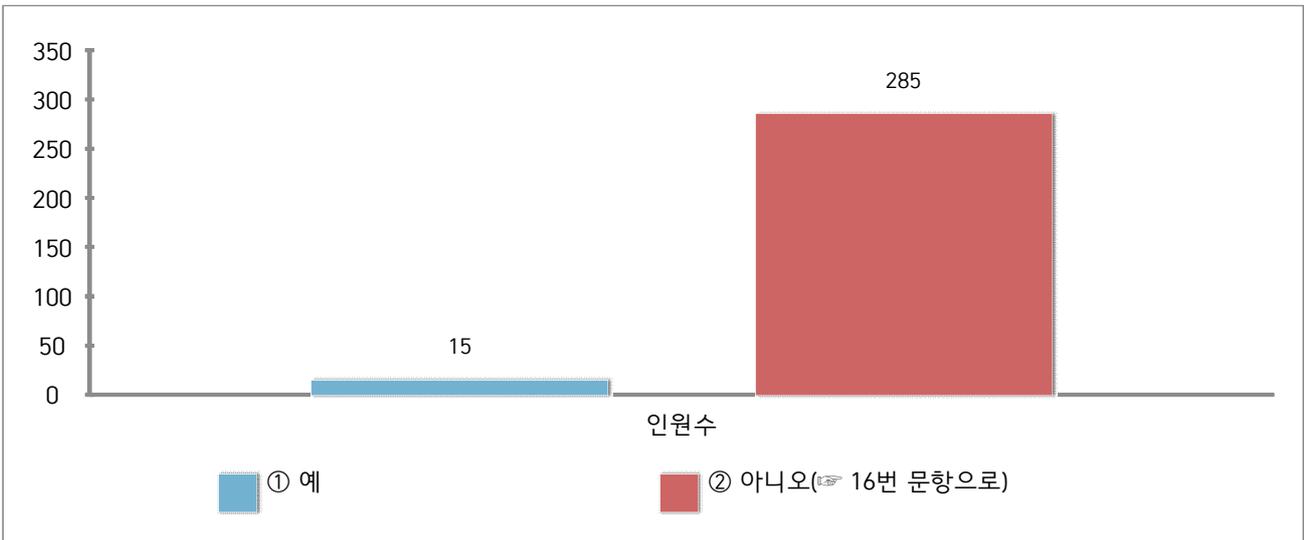


○ 사업장변경 횟수는 2회 105명(35.0%), 1회 66명(22.0%), 사업장 변경 없음 84명(28.0%)로 나타남.

-방문취업비자(H-2)는 사업장 변경 제한 횟수 없음

15. 귀하는 현재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기를 원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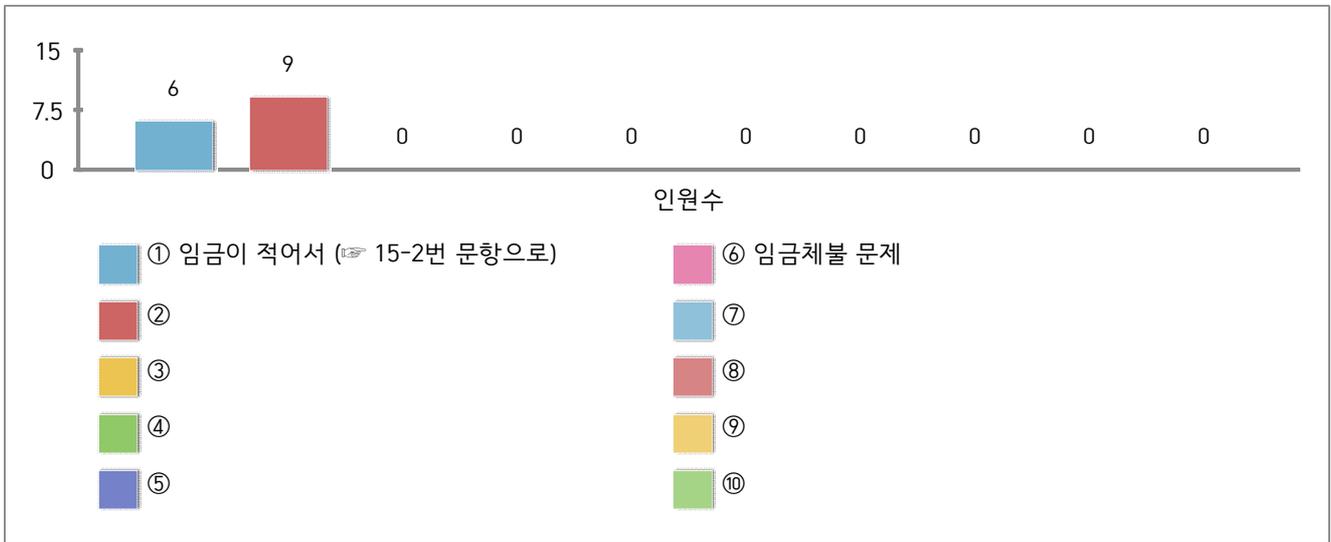
구분	① 예	② 아니오(☞ 16번 문항으로)
인원수 (명)	15	285



○ 사업장 변경 희망 15명(5.0%), 사업장변경 비 희망 285명(95%)으로 나타남.  
-사업장 변경 희망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당히 높음.

15-1. 귀하가 사업장 변경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① 임금이 적어서 (☞ 15-2번 문항으로)	② 일이 힘들어서	③ 다거나 파아서	④ 기숙사, 식의 문제	⑤ 회사의 비인간적인 대우때문에	⑥ 임금체문제	⑦ 주 52시간 적용	⑧ 산업재해위험성때문에	⑨ 친구또는 친지와 함께 일하고 싶어서	⑩ 기타
인원수 (명)	6	9	0	0	0	0	0	0	0	0



○ 사업장 변경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이 힘들어서 9명(60.0%), 임금이 적어서 6명(40.0%)으로 나타남.

15-2. 귀하의 한달 평균 임금은 얼마입니까(4대 보험 등 공제하기 전 총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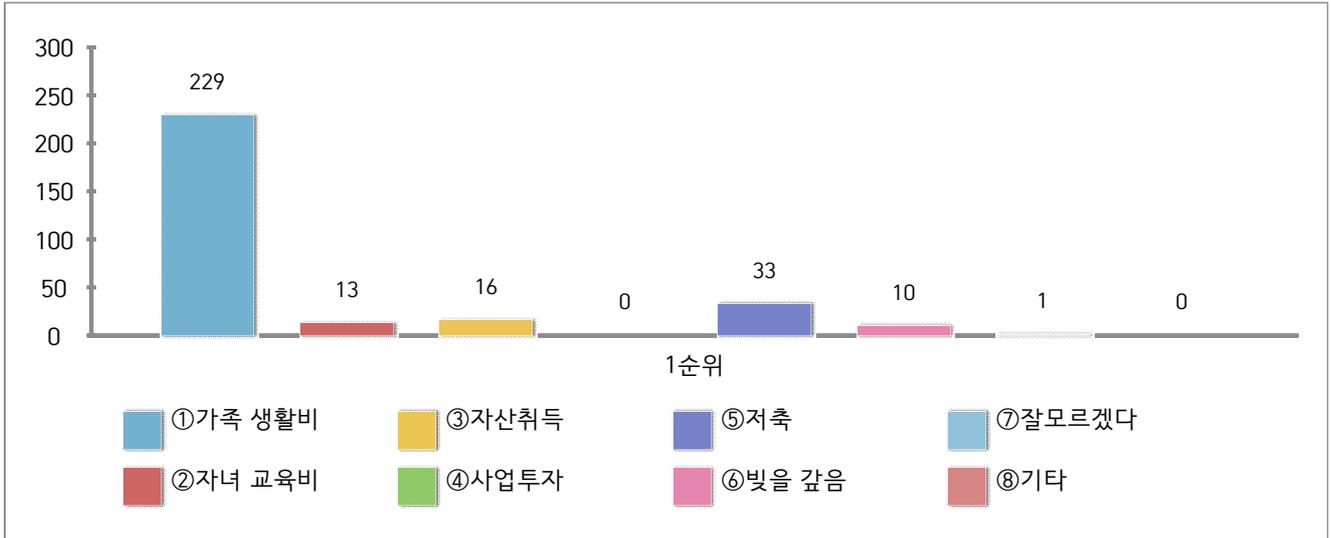
구분	①최저임금 (2022년 기준)	②200만원 이상 ~ 250만원 미만	③25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④300만원 이상 ~ 350만원 미만	⑤35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⑥400만원 이상
인원수 (명)	4	2	0	0	0	0



○ 임금이 적어서 사업장 변경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6명 중 4명(66.4%)이 2022년 최저임금을 받고 있고 2명(33.3%)은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으로 응답함.

16. 귀하가 송금한 돈은 본국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선순위로 번호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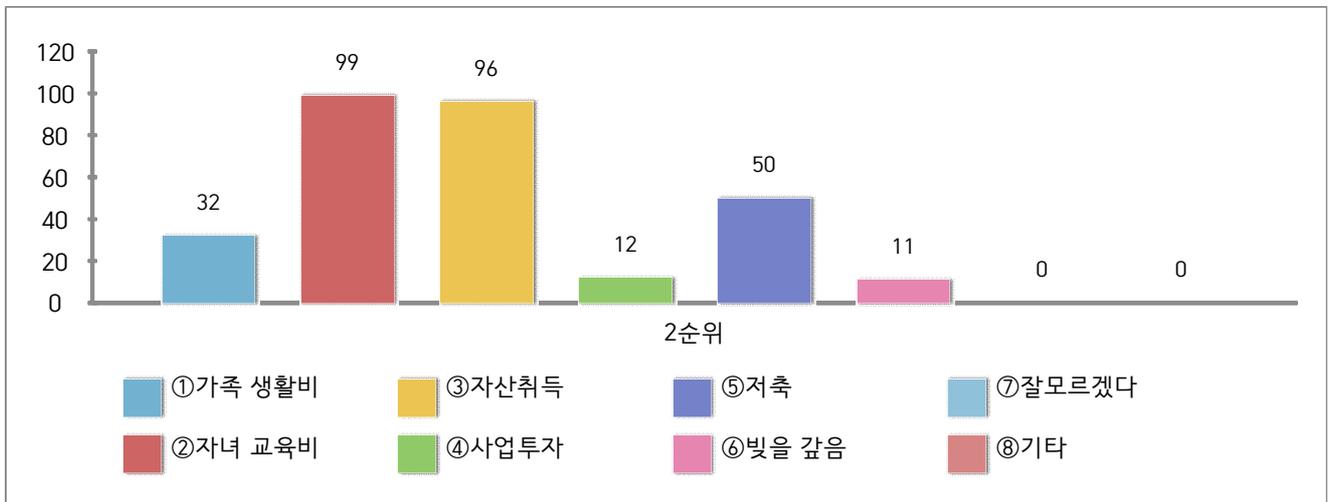
구분	①가족 생활비	②자녀 교육비	③자산 취득	④사업 투자	⑤저축	⑥빚을 갚음	⑦잘모르겠다	⑧기타
1순위	229	13	16	0	33	10	1	0



○ 본국에 송금한 돈의 사용처 중 1순위로 가족 생활비 지출 229명(76.3%), 저축 33명(11.0%), 자산취득 16명(5.3%), 자녀교육비 13명(4.3%), 빚을 갚음 10명(3.3%) 순으로 나타 남

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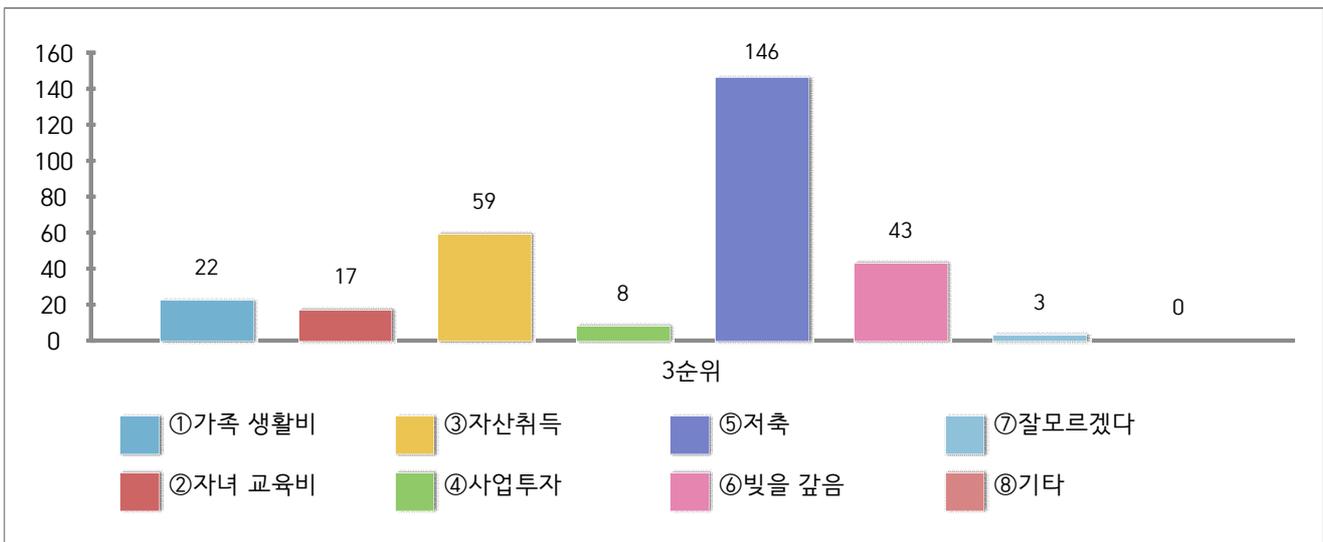
구분	①가족 생활비	②자녀 교육비	③자산 취득	④사업 투자	⑤저축	⑥빚을 갚음	⑦잘모르겠다	⑧기타
2순위	32	99	96	12	50	11	0	0



○ 본국에 송금한 돈의 사용처 중 2순위로 자녀교육비 99명(33.0%), 자산취득 96명(32.0%), 저축 50명(16.6%), 가족생활비 32명(10.6%), 사업투자 12명(4.0%), 빚을 갚음 11명(3.6%) 순으로 나타남.

### 3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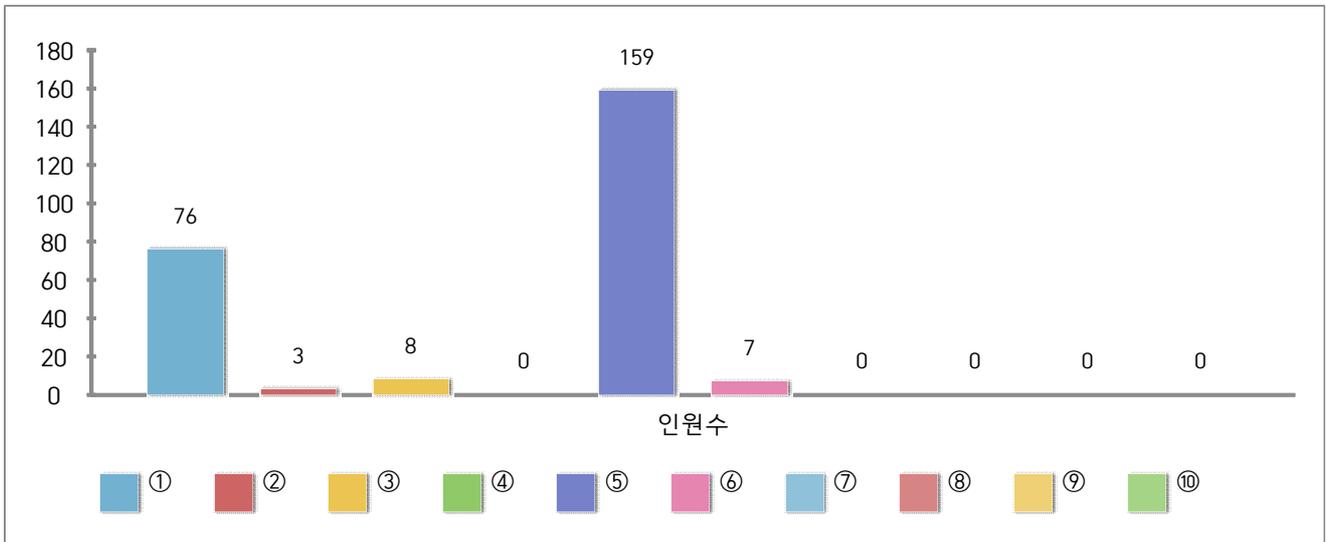
구분	①가족 생활비	②자녀 교육비	③자산 취득	④사업 투자	⑤저축	⑥빚을 갚음	⑦잘 모르겠다	⑧기타
3순위	22	17	59	8	146	43	3	0



○ 본국에 송금한 돈의 사용처 중 3순위로 저축 146명(48.6%), 자산취득 59명(19.6%), 빚을 갚음 43명(14.3%), 가족 생활비 22명(7.3%), 자녀교육비 17명(5.6%), 사업투자 8명(2.6%) 순으로 나타남.

### 17. 귀하는 한국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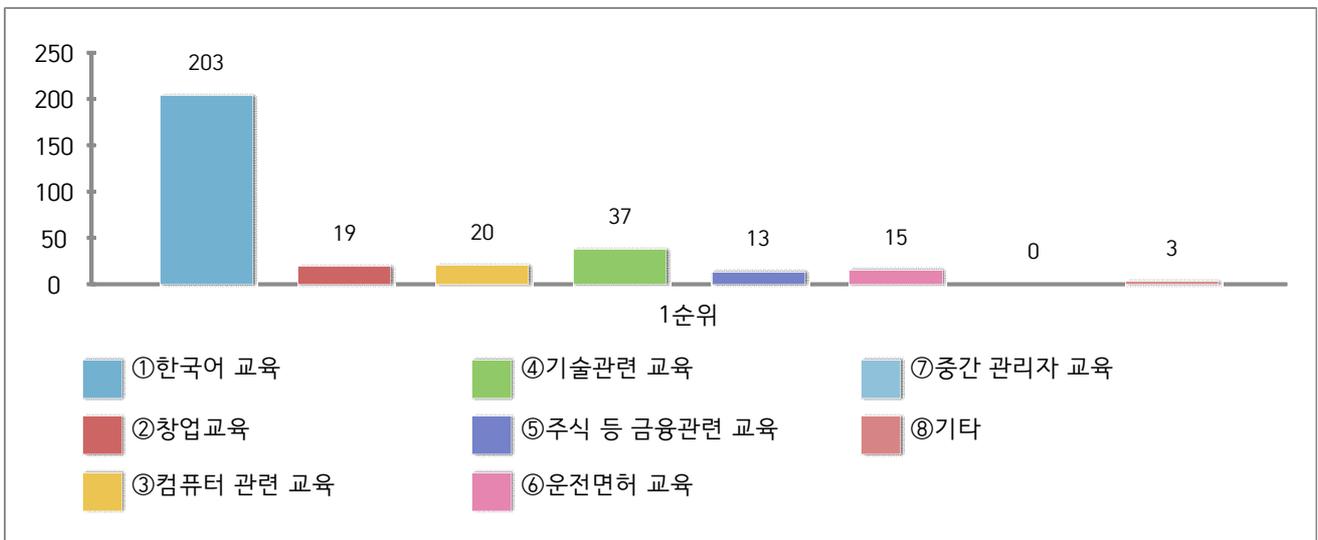
구분	①음식	②주거 및 숙소	③건강 문제	④기후, 날씨 적응	⑤언어 소통 문제	⑥문화 차이	⑦금전 문제	⑧성생활 문제	⑨없음	⑩기타
인원 수 (명)	76	3	8	0	159	7	0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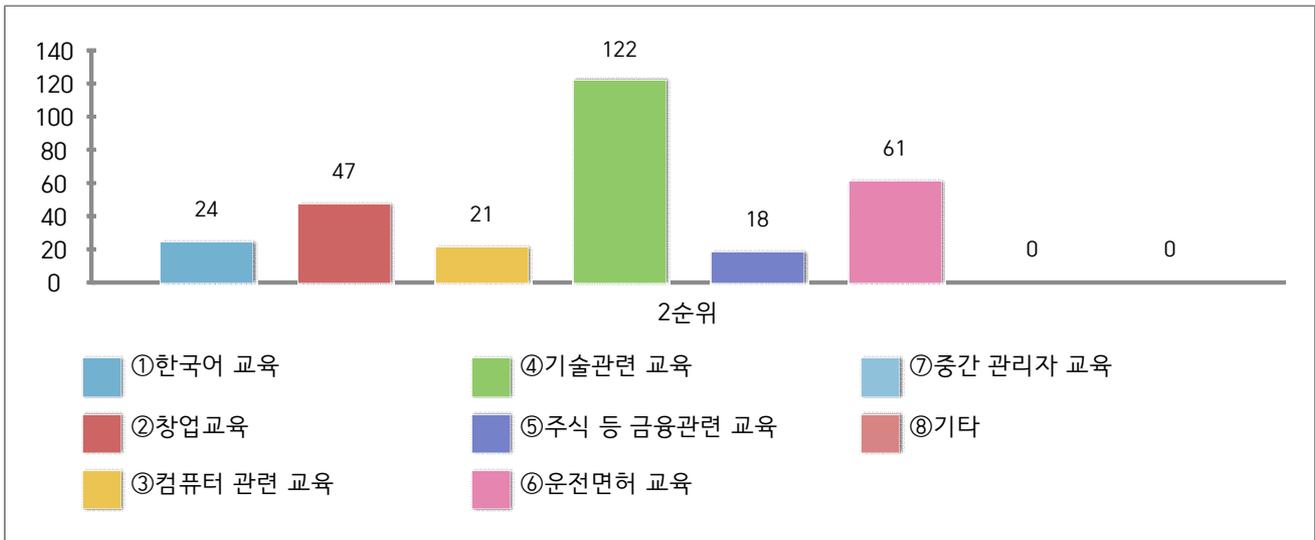


○ 언어(의사소통)문제 159명(53.0%), 음식 76명(25.3%), 건강문제 8명(2.6%),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 7명(2.3%), 주거 및 숙소 3명(1.0%) 순으로 나타남

18. 귀하는 현재 한국에서 가장 많이 받고 싶은 교육이 있다면 무엇입니까?(우선순위로 번호기재)

구분	① 한국어 교육	② 창업 교육	③ 컴퓨터 관련 교육	④ 기술 관련 교육	⑤ 주식 등 금융 관련 교육	⑥ 운전 면허 교육	⑦ 중간 관리자 교육	⑧ 기타
1순위 (명)	203	19	20	37	13	15	0	3
2순위 (명)	24	47	21	122	18	61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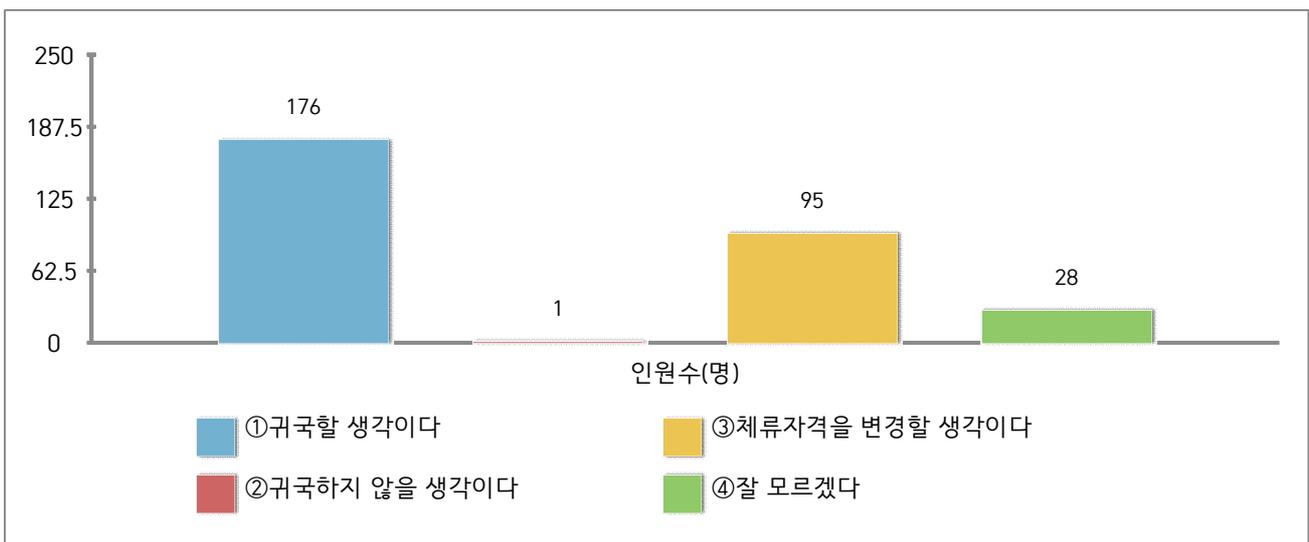




○ 한국체류 중 가장 받고 싶은 교육 1순위 1위로 한국어교육 203명(67.6%), 기술관련 교육 37명(12.3%), 컴퓨터 교육관련 20명(6.6%), 창업교육 19명(6.3%)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2순위 1위로 기술관련 교육(용접, 증장비, 자동차 수리 등)122명(40.6%), 운전면허 교육 61명(20.3%), 창업교육 47명(15.6%), 한국어교육 24명(8.0%), 컴퓨터 관련 교육 21명(7.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9. 귀하는 체류기간만료 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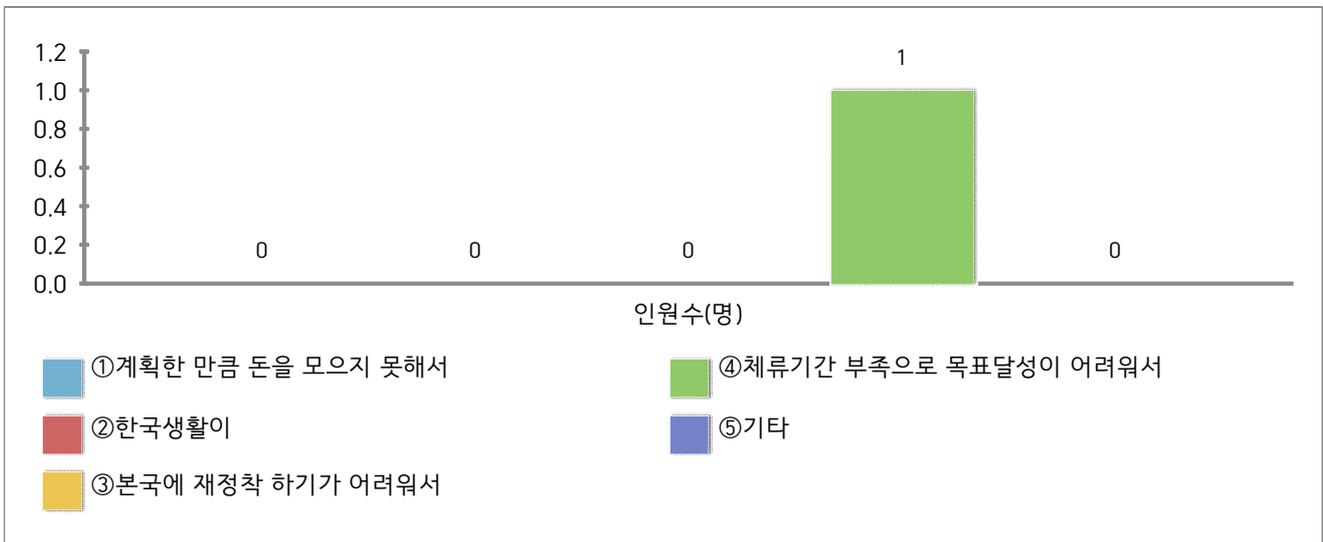
구분	①귀국할 생각이다	②귀국하지 않을 생각이다 (☞ 19-1번 문항으로)	③체류자격을 변경할 생각이다	④잘 모르겠다
인원수(명)	176	1	95	28



○ 체류기간 만료 후 귀국할 생각이다 176명(58.6%), 체류자격을 변경할 생각이다 95명(31.6%), 잘모르겠다 28명(9.3%), 귀국하지 않을 생각이다 1명(0.3%)으로 나타남

19-1. 만약에 불법체류를 생각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①계획한 만큼 돈을 모으지 못해서	②한국생활이 익숙해서	③본국에 재정착 하기가 어려워서	④체류기간 부족으로 목표달성이 어려워서	⑤기타
인원수(명)	0	0	0	1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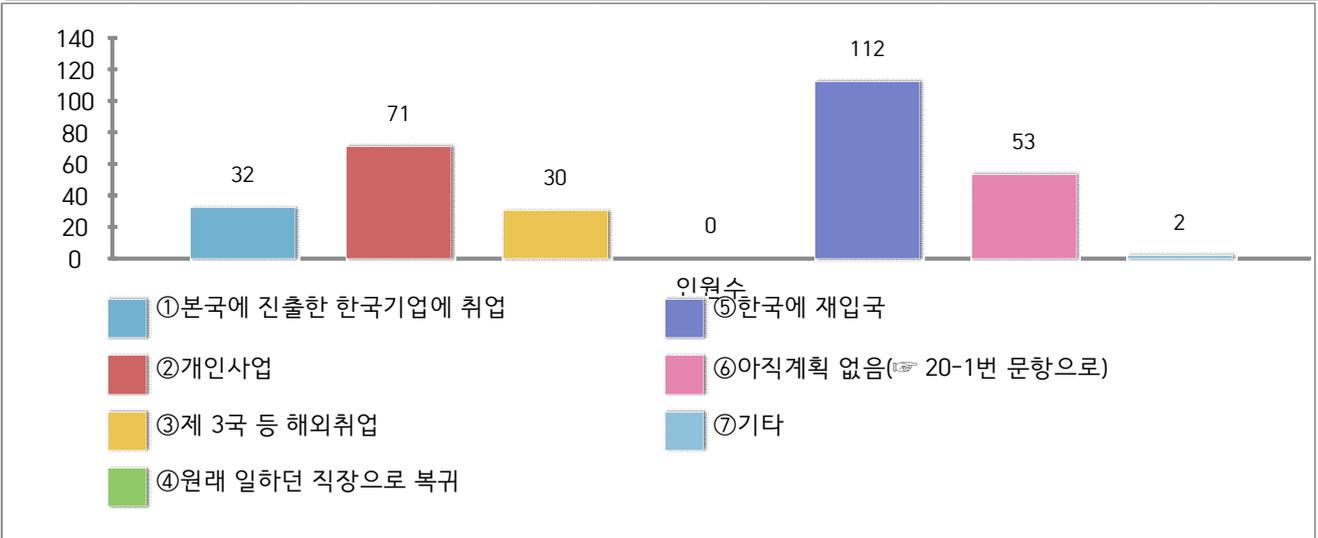


○ 귀국하지 않을 생각이다 라고 응답한 1명은 체류기간이 부족하여 목표 달성이 어려워 귀국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 IV. 귀국준비 및 재정착 계획

### 20. 귀하는 본국으로 귀국한다면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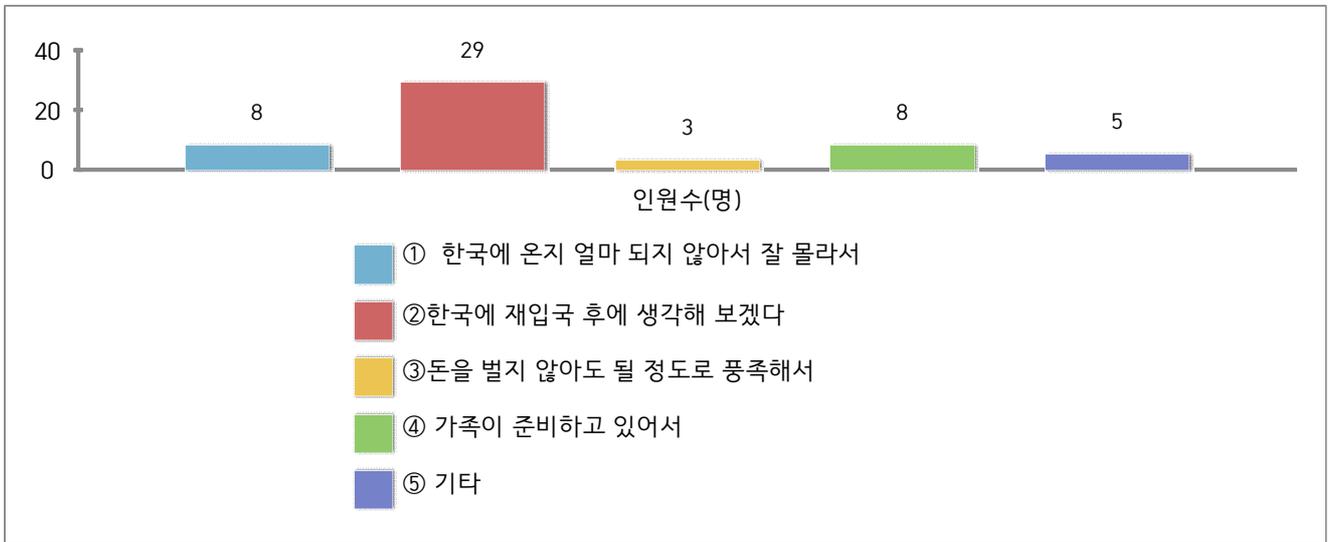
구분	① 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취업	② 개인사업	③ 제 3국 등 해외취업	④ 원래 일하던 직장으로 복귀	⑤ 한국에 재입국	⑥ 아직 계획 없음(20-1번 문항으로)	⑦ 기타
인원수(명)	32	71	30	0	112	53	2



○ 본국 귀국 후 계획에 대해 한국에 재입국 112명(37.3%), 개인사업 71명(23.6%), 아직 계획 없음 53명(17.6%), 제3국 등 해외취업 30명(10.0%) 순으로 나타남

### 20-1. 귀하가 본국 재정착 계획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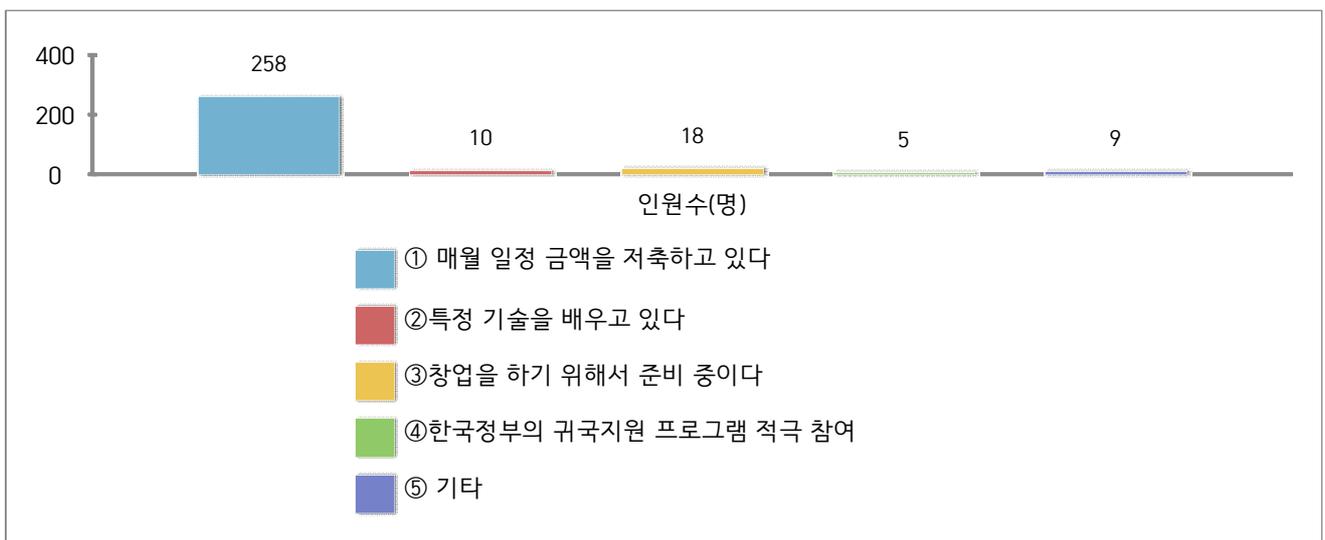
구분	① 한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몰라서	② 한국에 재입국 후에 생각해 보겠다	③ 돈을 벌지 않아도 될 정도로 풍족해서	④ 가족이 준비하고 있어서	⑤ 기타
인원수(명)	8	29	3	8	5



○ 아직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53명 중 29명(49.0%)이 한국에 재입국 후에 생각해 보겠다, 8명(15.0%)이 한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몰라서, 가족이 준비하고 있어서, 3명(1.0%) 돈을 벌지 않아도 될 정도로 풍족해서, 기타 등의 순으로 나타남.

21. 귀하는 귀국 재정착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면 무엇입니까?

구분	①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있다	② 특정 기술을 배우고 있다	③ 창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다	④ 한국정부의 귀국지원 프로그램 적극 참여	⑤ 기타
인원수(명)	258	10	18	5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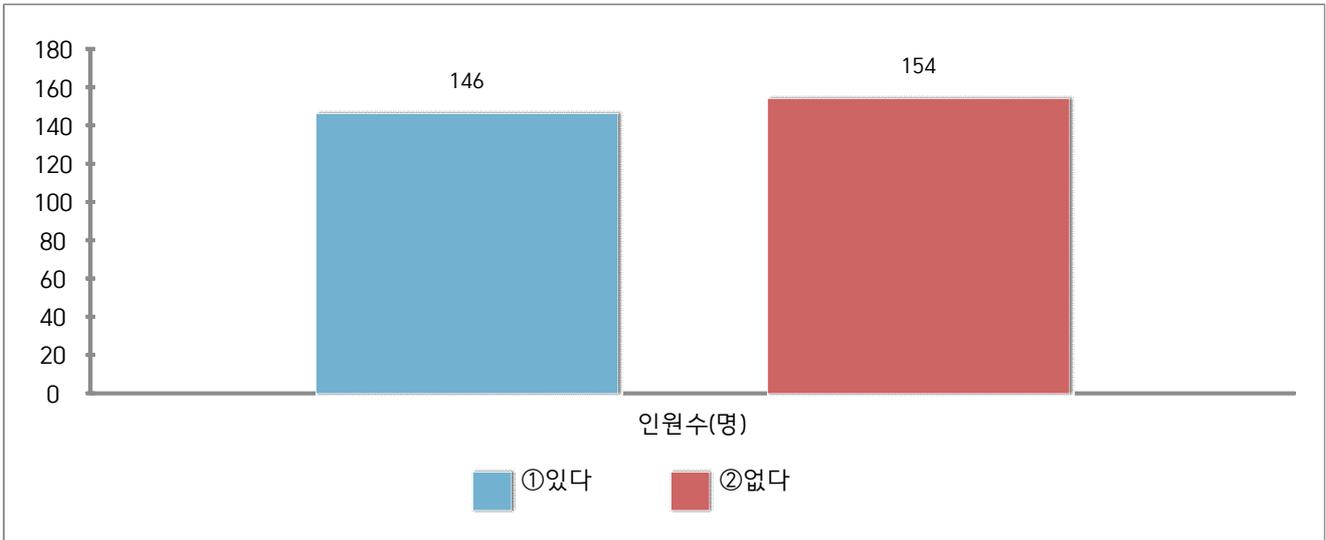


○ 재정착을 하기 위한 준비로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있다 258명(86.0%), 창업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18명(6.0%), 특정 기술을 배우고 있다 10명(3.3%),

한국정부의 귀국지원프로그램 적극 참여 5명(1.6%)로 나타남.

22. 귀하는 귀국준비 절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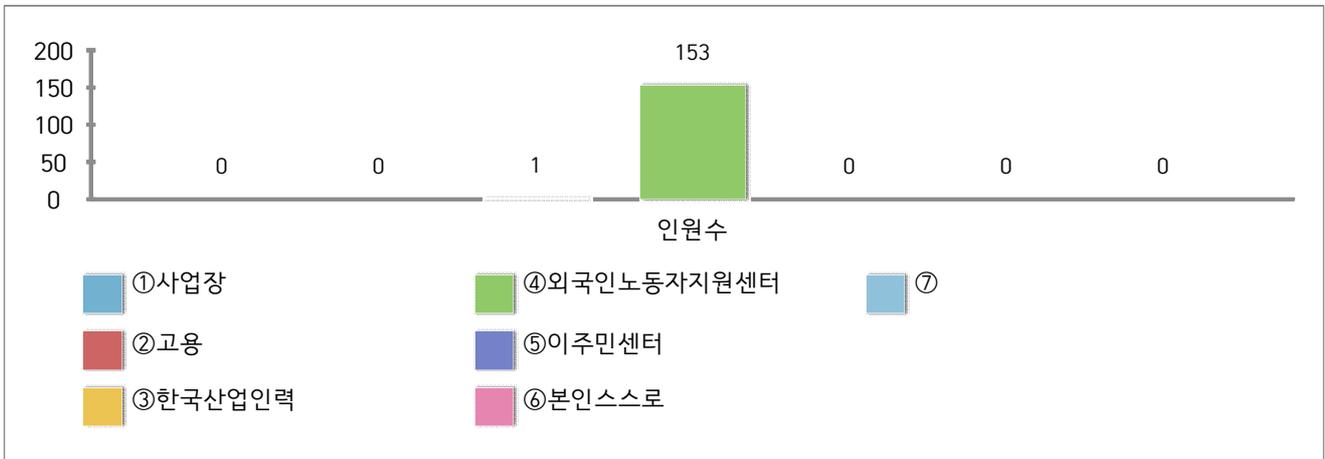
구분	①있다	②없다 (☞ 22-1번 문항으로)
인원수(명)	146	154



○ 귀국 준비 절차에 대해 146명(48.6%)가 잘 알고 있다 154명(51.3%)가 잘 모른다고 응답함.

22-1. 귀하는 귀국준비를 하기 위해 누구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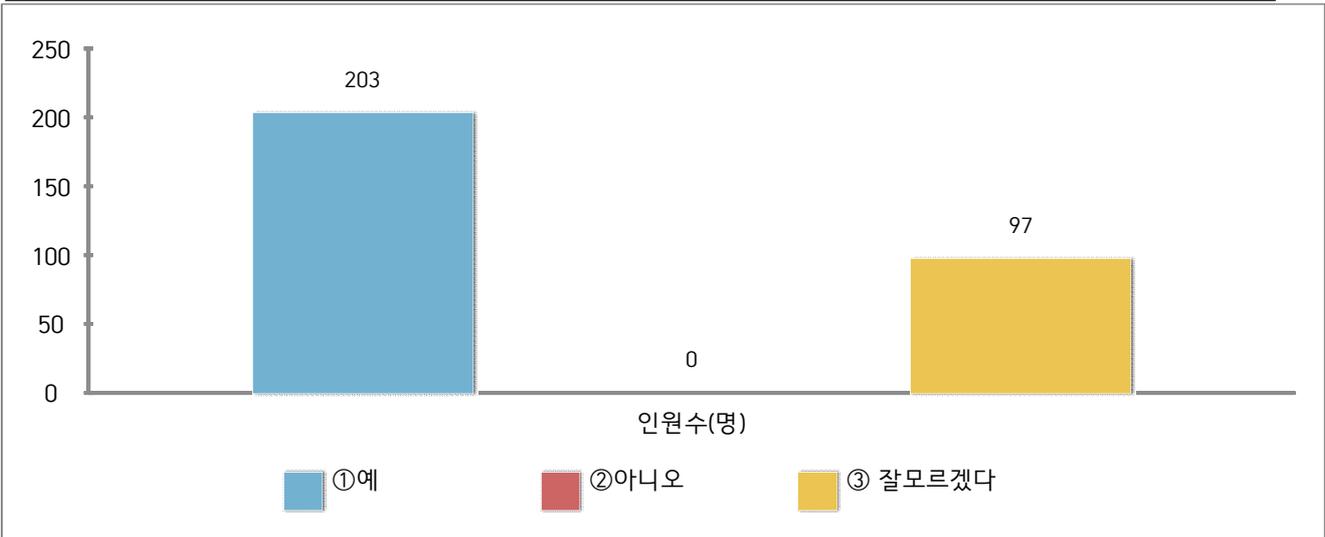
구분	①사업장	②고용센터	③한국산업인력공단	④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⑤이주민센터	⑥본인 스스로	⑦기타
인원수(명)	0	0	1	153	0	0	0



○ 귀국준비 절차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154명 중 향후 도움 받고 싶은 곳으로 153명(9.3%)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통해 도움 받고 싶다고 응답함.

23. 귀하는 한국에서 경험한 것이 귀국 후의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예 (☞ 23-1번 문항으로)	②아니오	③ 잘모르겠다
인원수(명)	203	0	97



○ 한국에서의 경험이 귀국 후 삶에 203명(67.6%)이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고, 97명(32.3%)가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함.

23-1. 귀하에게 무엇이 가장 도움이 되는지 1가지만 기재해 주세요?

- 임금이 높아서 추후 부동산구매 또는 생활에 도움이 됨.
- 해외취업 이력이 있으면 재취업이 가능하다.
- 귀국 후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 생활의 질이 높아졌다.
- 시간약속의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 한국에서 배운 언어 및 기술을 활용 할 수 있다.
- 현지에 있는 한국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다.
- 본국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한국에서 해볼 수 있다.
- 창업을 하기 위한 자본금을 빨리 모을 수 있다.
- 한국어 및 컴퓨터 교육을 받을 수 있다.

24. 기타 고용허가제와 관련하여 개선의견이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간략하게 적어 주세요.

- H-2비자로 취업 시 사업주가 근로개시 신고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서비스업 사업주 대부분 근로개시 신고를 해주지 않는다.
- H-2비자로 건설업 근무 시 근로개시 신고 해주지 않는다.

## IV. 설문 결과 총평

□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에 능력시험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지만 시험을 합격하더라도 개인별 국가별 입국하는 시기는 상이하며 지출되는 비용도 각각 다 다르게 나타남.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한국어시험 합격 후 입국하는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3년 이상 소요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입국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빨리 입국하기 위하여 브로커의 개입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 될 수도 있으며 입국까지 지출한 금액도 개인별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에 입국만 하게 된다면 근로자들은 많은 비용이 들어도 감수하며 본인의 입국시기를 빠르게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도 있으나 입국 시기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근 2년 넘게 신규입국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에 빨리 입국하기 위하여 브로커를 통한 피해가 발생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외국인근로자들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입국하지만 본국에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면 한국에서 체류기간이 끝나더라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남아 계속하여 체류하는 문제도 발생 할 수 있을 것이다.

□ 외국인근로자는 입국당시 근로계약 후 입국하지만 근로계약 조건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입국하게 되면 일이 힘들다, 급여가 작다는 이유로 사업장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사업주만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함. 사업장변경은 최소 입국 후 1년이 경과 후 사업장 변경을 고려 해 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됨.

□ 외국인근로자들의 대부분이 급의 사용처가 본국 가족생활비, 자녀교육비, 저축 등 일상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고 있고 언어소통의 문제로 한국생활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를 근거로 가장 배우고 싶은 교육을 한국어 교육을 희망하고 있으며 센터에서는 한국어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센터를 몰라 한국어 교육을 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센터에서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도 홍보가 많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이 됨. 체류만료 후 귀국준비 없이 한국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 외에 본국 재정착을 위해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근로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센터에서는 외국인근로자들의 행복한 귀국을 돕기 위해 진로상담을 실시하지만 참여가 저조하고 진로상담에 대한 인식도 낮아서 실효성이 없다. 근로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본국에서 진로상담을 통해 삶에 대한 설계를 한다면 보다 나은 한국생활과 한국 취업 적응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 외국인근로자는 귀국준비 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아 센터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나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담원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